Entertainment p/17
윤하 '남자친구' 개봉박두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제2660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배용준 연인 '재계 엄친딸'

광화문 물들인 '책 읽는 산타' 플래시몹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은 어때요?"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라며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연합뉴스

'한국판 디즈니랜드' 향한 행보?

'8조 갑부' 김정주 NXC 회장 최근 '어린이' '가족' 관련 사업체 인수 배경 주목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꿈꾸는 김정주(사진) NXC 회장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국내 1위 게임사 넥슨 창업자이자 넥슨 지주사인 NXC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이 어린이와 가족을 테마로 하는 사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거나 선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8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김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다음으로 부자인 사실로도 유명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플레이 메이플스토리 체험전'을 오픈했다. 넥슨의 캐시카우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와 배경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테마파크다.

주 코코몽, 뽀로로 등의 인기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파크처럼 인기 게임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간에 재구현한 셈이다.

이에 앞서 넥슨은 지난 15일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업체 스토케AS를 5100억원에 인수했다. 스토케는 179만 원짜리 유모차 '익스플로리' 덕에 유아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무척 높다.

넥슨의 사업 영역 확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대 레고 중개 사이트인 브릭링크를 인수했다. 브릭링크는 중고 레고를 주로 거래하는 곳으로 역시 어린이를 둔 부모 사이에서 이용률이 높다.

지난 8월에는 국내 모바일 교육 콘텐트 업체 스마트스터디가 넥슨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 이 업체는 유아용 교육 앱 '핑크퐁'으로 대박을 터뜨린 곳으로 가정학습지를 모바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회장의 최근 6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어린이' '가족'을 공통분모로 하는 사업에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자신의 이름을 딴 제국을 만든 것처럼 김 회장이 한국판 디즈니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는 디즈니의 만화처럼 넥슨 게임의 확장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린이 도서 시장을 평정한 코믹 메이플스토리도 동명의 게임에서 나왔다. 게다가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게임 특성상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체험전만 해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수요가 상당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넥슨은 상하이와 도쿄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캐주얼게임은 물론, '피파온라인3' 등의 스포츠게임을 활용한 패밀리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실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마디로 넥슨이 온라인에서는 게임, 오프라인에서는 게임의 파생 상품으로 전 연령층의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

하지만 넥슨은 특정 영역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재교 NXC 이사는 "잇따른 인수합병(M&A)은 미래 가치를 고려한 투자 성격이 짙다. 게임이나 어린이 관련 기업이 아니라도 넥슨의 철학에 부합하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아들보다 '아버지 취업' 내년에도 고용 대세로

내년 청년층 취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4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3.8%로 가정했을 때 40만4000개가량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40만 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고용률(59.8%)은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년 고용 시장 역시 올해에 이어 고령층과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증가라는 3가지 특징이 주를 이뤄 55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령층이 취업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청년층 취업자는 5만9000명이 감소하고 핵심 노동 계층인 30~54세는 8만7000명이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34만2000명이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층 노동 수요는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했고 사업체 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내년에도 청년 노동 수요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r@

ICT강국의 해킹 불감증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올해 보안업계 최대 이슈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 은행·언론사 사이트까지 뚫린 사이버 공격(해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MBC·KBS·YTN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농협,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마비됐다. 당시 사이버 공격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춰지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지만 3개월 뒤인 6월25일 이번엔 청와대 홈페이지마저 뚫리고 말았다.

이처럼 선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에 정부 및 국내 기업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비책 마련에만 분주하다. 기업들의 대책 마련 상황은 심각하다.

한 화이트해커는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공격하는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한 뒤 해당 기업 보안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 보안 패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기업 보안 담당자는 해당 화이트해커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냐"식의 반응을 보이며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 같은 반응에 화이트해커는 "만일 구글에 이런 조언의 e메일을 보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한국이 보안에 번번이 뚫리고 있다. 과연 정부와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강국 코리아를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jy0403@

"추위 따윈 겁나지 않습니다" 23일 오후 강원 철원군 원동면 중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선에서 육군 7사단 수색대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택 숙청, 이권 때문"

국정원 "석탄 등 알짜사업 개입에 타 기관 불만"…'권력투쟁'과 다른 분석

국정원이 "장성택의 숙청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장성택이 이권에 개입해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김정은에게 비리가 보고돼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장성택은 당 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이는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청 후속 조치로 장성택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하는 등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 구도 변화와 관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부상됐다. 김원홍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측근 실세는 김원홍과 최룡해로 본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과 연계된 보안부장 지부일, 합영투자위원장 이광근 부총리 노두철, 당비서 문경덕 등은 정상 활동 중이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상 변동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주시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3월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북 5도 부대의 병력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간에 떠도는 장성택 최측근의 중국 또는 한국 망명설과 김정남 망명설 등에 대해서는 "낭설이다"고 부인했다.

/이도관기자

검찰 "국정원 트위터 글 선거관련성 명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윗 2만5800여 건의 실텍스트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한 이미지를 부각했다"며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준기자

뉴스 & 이슈

박 대통령 "설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사랑의 온도탑 50도 돌파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사랑의 온도탑이 50도를 넘어 모금 목표액인 3116억원의 51.2%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北서 공개한 '탈북자 재입북' 사례 13명

●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며 최근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가 13명에 달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북한이 공개한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日, 내전위기 남수단 파견 한국군에 실탄 제공

● 일본 정부가 내전 위기에 처한 남수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지 한국군의 요청을 받은 뒤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소총용 5.56㎜ 탄 약 1만 발을 한국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민노총 강제진입 후폭풍 "28일 총파업"

더 꼬여가는 철도노조 파업
수도권 전동차도 감축 운행

"국민의 발 꽁꽁"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에 접어든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1호선 신도림역의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철도노조 파업이 보름째로 장기화되면서 열차 운행률이 파업 후 최저 수준인 70%대까지 떨어졌다. 코레일은 장기간 파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5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내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철도 파업 후 처음으로 수도권 전동열차가 85.7%로 감축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0.1%에 불과, 물류 수송 지장이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찰의 본부 강제 진입을 비난하며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인턴 교육 이수자와 퇴직 경력자 중에서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며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 정비 외주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2일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철도 파업으로 처음 구속된 조합원이 나왔다.

/김민준기자

'벤츠타는 노인' 기초연금 안준다

수급대상 재산기준 강화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 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87만원,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주택 거주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주정 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며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숙인이 건넨 지폐 '뭉클'

IMF 절망 속 예년보다 많이 기부한 우리국민들
2억 큰손부터 1000원 고사리손까지 모두 천사

마음나눔 세상 만들기

② 구세군 자선냄비

"딸랑 딸랑~" 시끌벅적한 명동 한복판에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하 1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날씨지만 사랑을 전하는 종소리는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금세 녹여주는 듯했다. 하루 동안 구세군 사관생도 김종수(48)씨를 따라다녔다.

◆신용카드로 디지털 기부 가능

주말을 앞둔 명동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라는 외침에 자선냄비를 향한 따뜻한 손길도 더해져갔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선냄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기본 2000원이 결제된다.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디지털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취지를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들은 신용카드 기부를 신기해하며 재미 삼아 결제한 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경기가 안 좋아 모금액도 줄어들 것 같다"는 질문에 김 사관생도는 손사래를 쳤다.

"1997년은 IMF로 인해 절망적이고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죠. 어려울 때일수록 콩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31일 밤 12시까지 전국 76개 지역 350곳에서 이뤄진다. 올해 총 모금 목표액은 55억원이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기부금은 알코올중독자와 노숙인 재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심장병 환자 치료 지원, 실직자 재활지원사업, 재해민 구호 및 의료 지원 등에 쓰인다.

◆잊을수 없는 기부천사들

"예전에 경기도 분당지역에서 주머니 속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자선냄비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가시던 한 노숙인이 생각나네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아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다른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김종수 사관생도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많은 분들이 자선냄비 기부에 참여해서 난 분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지난해 60대 어르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1000만원을 기부해 자선냄비를 훈훈하게 했고, 90대 노부부는 2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60대 신사가 6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기부했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0원, 2000원씩 넣으며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그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소중히 간직해온 목걸이와 반지를 기부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며 "금반지를 자선냄비에 넣거나 현혈증서, 항공권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미소 지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많은 분들이 자선냄비 기부에 참여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어떨까요."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전국호환 교통카드 오늘 선뵌다

부산역서 개통식 · 26일부터 버스정류장 가판점서 판매

전국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24일 부산에서 첫선을 보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산역에서 부산시와 교통카드 사업자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와 함께 전국 호환 교통카드 개통식과 함께 승객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캐시비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개통식 당일부터 부산역에서 기차표를 사고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아직 카드 사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서울·대전·제주·포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26일부터 부산 주요 버스정류장 가판점에서 판매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전국의 편의점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과 정산 협의를 끝내는 대로 미개통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티머니를 비롯한 각 지역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보급할 예정이다.

코레일도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레일플러스 카드를 내년 2월 초 출시할 계획이다. 레일플러스는 철도역 주차장과 주요 역사 편의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교통카드 사업자가 달라 다른 지역과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전국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선불형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카드 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대 백사장에 말띠 조형물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2014년 갑오년 말띠 해의 상징 조형물이 설치돼 가운데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날아오르다'의 순우리말인 '나르샤'로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은 가로 3.07m, 세로 3.11m, 높이 3.5m 크기에 말과 말발굽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뉴시스

마을버스 안전점검 위반 203건 적발

부산시는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자동차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등 20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부산시를 비롯해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합동으로 26개 업체 266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점검반은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 점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 6년 이상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벌였다.

점검을 통해 ▲승하차문 전자감응센서 미작동 3건 ▲동력장치 타이어 미모기준 초과 29건 ▲소화기 관리·시트 덮개 훼손 등 80건 등 203건을 적발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정비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상 무단이탈한 혐의 베트남 선원 3명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 이탈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선원 V(20)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후 11시10분께 부산 영도구 남외항 N-4묘박지에 닻을 내리고 있던 꽁치 봉수망 어선 S호(1037t·한국 선적 승선원 36명)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선원 해상 무단 이탈에 대비해 인근 바다에서 순찰하던 부산해경 경비정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이 저체온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해경은 이들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무단 이탈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배는 21일 오후 3시께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가 어담 말 조업지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1000억원대 신종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3일 100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로 환치기 업자 A(35)씨 등 19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와 수출업체·운송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대금은 불법으로 들여오는 등 100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거나 대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수출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무역업체들은 매출을 숨기고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무역회사를 하던 환치기업자 A씨는 밀수출부터 선적, 대금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해주는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무역업체를 모집, 밀수출을 조장했다.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또는 보따리상 같은 운반책을 활용해 반입하면서 사업 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자금 추적을 피해왔다.

"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퇴학 처분 정당"

이중국적자에 대해 외국인학교에서 퇴학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A(13)군 부모가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상대로 낸 퇴교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2003년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모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했다. A군은 2010년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 전학을 했으나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출교 결정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의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외국인학교 입학에 있어서 내국인으로 규정한 것은 보법의 취업 취지에 따라 입법 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이와 즐기는 멀티체험 문화공간

롯데호텔부산 '유니세프 드림랜드' 오픈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심성면)은 1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유니세프와 제휴해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체험 문화전시공간인 '유니세프 드림랜드'를 오픈한다.

롯데호텔부산 42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우인형을 전시해두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우인형이 가진 의미(아름다운 우리 세계 1인 1국 희망 전달)를 전달하는 아우랜드(AWOO LAND), 어린이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팔둘레 측정 테이프, 탈수 증상을 막아주는 구강 수분보충염, 긴급 구호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영양실조 치료식 플럼피넛 등 유니세프 구호품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유나이트 랜드(UNITE LAND), 유니세프 기념사진 엽서고리 만들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펀플랜드(Fun+LAND), 깜찍한 유니세프 기념품과 브라우니 캐릭터 쿠키 세트가 들어있는 더 나눔 박스를 만날 수 있는 하트랜드(Heart Land), 롯데호텔부산이 후원하는 러브 포 유니세프 자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행사를 만나고 즐길 수 있다.

아우인형을 구경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 롯데호텔부산 제공

유니세프 드림 랜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1층과 42층에 준비된 대형 게시판에 유니세프 긴급 구호물품 스티커(영양제, 분전기, 식수, 예방주사, 학교)를 부착하면 스티커 1개당 2000원씩 후원금이 전달된다. 유니세프 긴급 구호물품 스티커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객실 내 유니세프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러브 포 칠드런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객실 투숙객들이 객실 내 비치된 유니세프 봉투에 기부금을 넣고 프런트 데스크로 전달하면 고객의 이름으로 유니세프에 전달된다. 롯데호텔부산은 매년 유니세프와 제휴해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기금 적기자의 유니세프를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문의 051)810-1000

/정하균기자 jha@metroseoul.co.kr

'양성평등 도시' 한걸음 더

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성별 특성 기반 다양한 정책 추진

부산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초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남녀를 단순히 각각의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보지 않고 여성·남성 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세대 간, 지역 간 경제·사회적 조건,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요구를 파악해 정책 품질이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 한 해 시책 담당자인 공무원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다. 간부 공무원 교육, 직장 교육, 찾아가는 구·군 교육, 현지기관별 성인지 심화교육을 개최해 3600여 명의 직원이 이수토록 했다.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수치다.

또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6월 22일)를 제정해 시민 참여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공원, 공공시설 등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 시민모니터링단' 사업은 민·관이 협동해 성 평등 행복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여성 화장실 변기(대) 증설 및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온천천 생태공원에 여성 안전 및 휠체어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 정비 ▲전국 최초 아동 안전지도 제작 ▲부산광역시 119 구급대원 여성 대원 편성 ▲임신부 우대 서비스 시행 ▲심야 시간대 아동·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성 참여 비율 증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개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인한 시민 체감도(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 의식 개선 교육을 확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일 시·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정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발대 지난 19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린 '제7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발대식' 행사에서 올해 홍보 산타로 참여한 배우 김원태(왼쪽 여덟째)씨가 내빈들과 포장된 선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

부산시는 부산국가지질공원의 활성화 및 지질공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2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월 육지(내륙)권에서는 최초로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질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광협회, 문화관광해설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박승기 지장이 '국가지질공원의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허운상 연구원은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좌장인 박맹언 부경대 전 총장의 사회로 반용부 신라대 교수, 최대현 부산갈맷길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갈맷길과 연계한 지질 명소의 활용 방안과 부산 지질 명소의 차별화, 지질공원 관리 방안, 해설사 배치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 가스사고 해마다 증가세

시 27일까지 합동점검

부산은 최근 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2011년 3건, 지난해 6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총 16건이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이들 가스 사고 원인은 취급 부주의 9건(56%), 시설미비 4건(25%), 고의 사고 2건(13%), 기타 1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겨울철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LP 가스충전소 및 도시가스 충전시설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시설 기준 준수 및 가스취급시설 안전장치 가동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설 개선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LP 가스충전소 및 도시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해 엄격하고 세밀한 안전점검을 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울산시민 1인당 소득 4년연속 전국 1위 차지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가장 잘 사는 지역민은 울산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562만5000원(연평균)을 기록해 서울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선 이후 4년 연속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시민들의 1인당 소득은 1831만4800원으로 서울(1751만5100원), 부산(1506만3000원), 대구(1430억7200원) 등을 앞질렀다.

이에 반해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249만2000원), 강원(1258만3200원), 충북(1339만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지출은 서울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서울 시민 1명이 쓴 돈은 1751만4300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1413만2300원으로 2위였고 경기 1380만9100원, 부산 1만368만800원, 대전 1356만800원 순이었다.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97.89 (+12.54)	489.63 (+1.22)	2.88 (변동 없음)	1061.00 (변동 없음)

뉴스 & 뉴스

외국인 전기전자 집중매수

올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28%를 차지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7월 이후 이달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두 13조148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순매수 금액이 5조755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운수장비(2조5651억원), 화학(1조5243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현정기자

우선주 7개 종목 상장폐지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되거나 사실상 상장폐지가 결정된 우선주가 7종목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SG충남방적 우선주가 상장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고려포리머 우선주 등 방아그로 우선주가 차례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수산중공업 우선주는 이달 30일까지 정리 매매를 거쳐 다음달 2일 상장폐지된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승 환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작대	김 병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3
부산광고문의	051)202-2100
독 자 센 터	02)721-9811

수입 크리스마스 용품 대부분 중국산

올 들어 크리스마스트리, 폭죽, 전등 등 크리스마스용품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공개한 '크리스마스용품 수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인조 트리 등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19.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증가한 96.0%를 지지했다. 태국은 1.6%, 베트남은 0.7%를 지지했다.

불꽃 제품의 수입액도 이 기간 12.1% 증가했다. 중국산의 수입 비중도 94.5%에서 97.0%로 2.5%포인트 늘었다.

장식용 조명의 수입액도 59.5%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의 비중은 99.7%로 전년도(99.6%)에 이어 100%에 육박했다. /김현정기자

증권사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10곳 중 4곳 매물로 나와

국내 10대 증권사 중 대형으로 꼽히던 4곳이나 매물로 나오면서 증권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이고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매물은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이며 KDB대우증권은 내년에 매각 추진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매물로 꼽힌다.

우투증권의 경우 지난 16일 우리금융지주가 우투증권 패키지(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포함)에 대한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NH농협금융에 팔릴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우투증권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3조4569억원으로 업계 2위의 대형 업체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우투증권이 NH농협증권과 장기적으로 합병된다면 자본 총계만 4조원, 자산 35억원 수준으로 업계 선도업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투증권 인수전에서 농협금융에 선두를 뺏긴 KB금융지주가 차선책으로 동양증권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6일 KB금융은 동양증권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기도 했다. 당시 KB금융 측은 여러 증권사 M&A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황 부진으로 인수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금융지주와 사모펀드가 제한적이다 보니 KB금융이 우투증권, 동양증권을 넘어 내년에 매물로 나올 예정인 KDB대우증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자본 총계 3조9730억원으로 업계 1위인 명실상부한 대형 매물로 꼽힌다. 내년 7월 산은금융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는 압도적인 업계 1위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권사 M&A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의 경우 지난 22일 현대그룹이 금융업 철수를 위해 관련 계열사 3곳을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현대증권 역시 자본 총계 기준으로 업계 5위를 차지하는 대형사다. 현대증권이 현대차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에 넘어가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들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과 합쳐지면서 업계 공룡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시장에서도 현재 증권사가 너무 많다고 인식해 M&A가 활성화되면 경쟁력을 갖춘 곳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2014년
아시아를 흔… 금융혁신을 시작
HYUNDAI SE… S CO., LTD.

매각 결정된 현대증권 현대그룹이 주축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 3개사 매각 발표를 한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현대그룹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그룹은 우선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모두 매각, 금융업에서 완전히 철수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고 대박 주식부자' 이해진 네이버 의장

1년새 6551억 증가 평가액 1조 1925억

올해 보유 주식 평가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주식부자는 이해진(사진) 네이버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네이버 창업 멤버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차지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NHN의 분할 재상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네이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해진 의장이 보유한 네이버 외 1개사의 지분 평가액은 지난 19일 종가 기준 1조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074억원보다 무려 6751억원(133.0%)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해진 의장에 이어 이준호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 평가액이 4086억원에서 9522억원으로 5436억원(133.0%) 증가해 2위에 올랐다.

두 사람의 주식갑부 순위도 작년 29위와 37위에서 15위와 16위로 각각 14계단과 21계단 뛰어올랐다.

3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038억원·25.7%), 4위는 정몽진 KCC 회장(3046억원·54.88%)이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도 지분 평가액은 2717억원(26.61%) 늘어 5위를 기록했다.

허창수 GS 회장이 보유한 GS 외 1개사의 지분 가치는 6628억원에서 4013억원으로 2616억원(39.56%)이나 줄어 보유 주식 평가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산타가 된 금융권

상품권·스키장 할인 등 이벤트 풍성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주목해보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투자증권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LIG투자증권과 함께해요!'라는 이름으로 오는 27일까지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LIG투자증권 페이스북(www.facebook.com/LIG Orda) 이벤트 게시글에 크리스마스 계획이나 소원을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파리바게트 상품 교환권(3000원권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을 지급한다.

NH농협카드도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14개 주요 스키장에서 농협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50% 할인을 받는다. 연말까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협카드로 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종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하고, 홈페이지 등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을 캐시백해준다. 또한 31일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준다.

우리은행은 연말연시 기념으로 연 2.85% 금리를 제공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키위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연 2.85%의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1인당 1계좌에 한해 최고 2000만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어 소액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이 예금은 24일까지 총 3000억원 한도 범위에서 판매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희망드림적금'에 가입한 100명의 고객에게 따뜻한 난방기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illegible]기자

동부대우전자 日 네오펠리스에 가전 20만대 공급

동부대우전자(대표 이재형)가 일본 가전 시장에서 잇따라 낭보를 터뜨리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일본 최대 오피스텔 브랜드인 '네오펠리스'에 가전제품 20만 대를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냉장고 제품 공급을 시작한 동부대우전자는 이후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올해 ▲86ℓ 냉장고 ▲4.6kg 세탁기 ▲19ℓ 전자레인지 등 공급 모델을 확대하며 월 5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illegible]기자

산은·기은 공공기관 될듯

2년만에 재지정 추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달라며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예비 리스트를 제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정부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실세' 강만수 회장이 떠나자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명분이 민영화였던 만큼 이들 기관의 민영화가 보류된 현재로선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이 예전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다시 정부의 통제 안에 놓여 기관장과 직원 1인당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 결과 보고서 등 경영공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를 진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천명한 만큼 감시와 통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반관반민 성격의 금융기관 감독 기구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1월 해제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내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illegible]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경영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사진은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T 아프리카 어린이에 깜짝 선물 · LG유플러스 사랑의 헌혈 캠페인 ·

IT기업들 '나눔 릴레이'

통신·IT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IT기업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으로 따뜻한 송년을 보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사회공헌 전담 직원들로 이뤄진 IT서포터즈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현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깜짝 행사를 진행했다. KT IT서포터즈는 르완다 카보니 냐무바카 마을을 방문해 현지 초등학생 90여명과 함께 풍선에 소원을 적고 태블릿 PC 앱을 활용,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다.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T멤버십 고객 대상 소셜커머스 '초콜릿'을 통해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구호물품 기부전'을 진행,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의 일시 후원 프로그램 '생명을 구하는 선물'과 연계한 구호물품 기부전은 연필과 공책, 수구공 등 교육 관련 물품, 영양실조 치료제, 각종 백신, 응급처치 상자 등 의료품과 깨끗한 물, 통학용 자전거, 구호텐트 등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들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할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 'U+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임직원이 헌혈증을 기부하면 헌혈증 1장당 회사가 1만원씩 매칭해 지원하며 모아진 헌혈증과 기금은 내년 1월 LG유플러스 리더혁신캠프에서 합액암 환아 지원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임직원이 산타 원정대로 변신해 전국 각지의 소년원생과 결식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산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행복산타 프로젝트는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맞이하는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12월 한 달간 전국 10개 1200명의 소년원생과 30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다이어리, 화장품, 책 등 평소 갖고 싶다고 적어낸 물품들을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선물했다.

LG CNS 역시 임직원 40여 명이 서울 금천구 푸른샘 지역아동센터, 영등포구 디모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명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어린이가 스스로 포토북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함께 촬영한 사진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전문 미술강사를 초빙, 어린이들의 자화상 그리기 미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박싱위크' 파격할인 누리세요 홈플러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박싱위크'라는 대대적인 송년 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1% 대기업 매출액 65%

쏠림현상 갈수록 심화

상위 1% 기업이 매출을 독식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기업체 48만372개 중 0.9%(4083개)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65.1%(2649조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각각 6480억원과 30억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0배가량 많았다.

기업당 평균 총 자산도 대기업이 1조3977억원, 중소기업은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대기업 기업체 수는 제조업(28.7%)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6%), 금융·보험업(11.1%)이 뒤를 이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조2375억원), 제조업(1조449억원), 도·소매업(54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기업체 수 증감률은 2011년 12.4%에서 2012년 6.9%로, 매출액 증감률은 같은 기간 10.9%에서 3.3%로 각각 5.5%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총 자산 증감률은 2011년 8.2%에서 2012년 10.6%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체 수는 도·소매업(25.8%), 제조업(20.9%), 건설업(16.9%) 순으로 많았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53억원), 도·소매업(35억원), 운수업(20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기업체 수는 48만372개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체 수(5219개)가 전년 대비 18.7%나 증가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현대종합상조, 프리드라이프로 사명 변경

국내 1위 상조기업 현대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프리드라이프는 내년 1월부터 '여행'과 '웨딩' 부문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명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사명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08년 현대종합상조가 국내 최초로 론칭한 상조 서비스 브랜드 '프리드(Preed=Pre-Need)'의 준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다'의 가치로 글로벌 성장력을 강화, 라이프 토털 케어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았다.

프리드라이프 박용덕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국내 라이프 토털 케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 신뢰 경영을 통해 국내외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전 국민의 라이프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고객 감동을 이어가며 1위 기업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상조 서비스를 시작해 혁신적 경영으로 업계를 선도해온 기업이다.

지난 4월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외 주최 및 후원) 삼조 서비스 부문 대표 브랜드에 선정됐으며,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산총액·선수금 규모 1위, 2010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상조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종합 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스마트폰 케이스 출시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기업인 애니모드는 명품 프라이빗 디자이너 브랜드 '엘도노반'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갤럭시 노트3 전용 '엘도노반 리자드 커버'를 23일 출시했다.

미니멀리즘과 모던함이 브랜드 콘셉트인 엘도노반 리자드 커버는 세련된 리자드(도마뱀) 가죽과 배터리 커버 형태의 슬림함, 전면에 화이트 로고 플레이트가 장식돼 유니크한 멋이 특징이다. 가격은 13만 9000원.

/[illegible]기자 [illegible]

직장인 93% "이직 의향"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5151명을 대상으로 '이직 의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려 92.5%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도 60.9%에 달했다.

이직 이유로는 '연봉이 만족스럽지 못해서'(38%,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근무 조건이 열악해서'(35.4%), '스트레스 강도가 센 편이라서'(26.4%),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21.4%), '직장에 비전이 없어서'(18.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직을 위해 언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66.3%로 나타났다. '커리어 등 회사 인맥'(41.1%, 복수 응답)을 관리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이순신' 보이면 타이어 바꿔라

한파 대비 차 관리요령

겨울철 운전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파에 대비해 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을 알아본다.

◆타이어 관리 소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타이어는 연간 1만5000~2만km 주행할 경우 2~3년마다 교환해야 마모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100원짜리 동전을 트레드 홈에 넣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면 타이어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된다. 또 차량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과 더불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제동 시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면 브레이크 패드 점검해봐야

100원 동전으로 확인 · 브레이크 패드 1만km마다 점검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평소와 다른 소음이 감지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브레이크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한다. 주 제동 브레이크 패드는 약 4만km를 기준으로 교체 주기가 형성되며 1만km마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액 점검해야 브레이크 시스템의 수명 늘릴 수 있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된 만큼 브레이크액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액의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브레이크액의 교환과 함께 반드시 브레이크 패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브레이크액은 엔진 룸에 위치하고 반투명의 탱크에 담겨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편하다.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색깔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즉시 교환 또는 보충해야 한다.

◆ 와이퍼, 전조등 사용 잦아 배터리 점검도 필수

대서운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여행 전 미리 배터리를 점검해야 한다. 배터리 상태는 충전지 시계(인디케이터)의 확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충전지 시계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6개의 셀 중 한 곳에 비중에 따라 변화하는 색상의 시계를 설치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녹색을, 방전 시에는 흑색을,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투명한 색으로 표시된다. 만약 충전지 시계상의 색상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어려다면 가까운 정비전문점을 찾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추운 날씨는 배터리의 수명을 조기 종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차량을 지하주차장과 같은 비교적 덜 추운 곳에 주차하거나 배터리 외부에 방한용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다.

◆ 전구류 점검도 놓치지 마세요

브레이크등이 고장 나면 뒤따르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자칫 앞차를 추돌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까운 카센터를 찾아 방향지시등, 전조등, 브레이크등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의혁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난방비 잡는 난방텐트 2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실내 외풍을 차단하고 열 손실을 줄여 난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인 '울크로스 난방텐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 텐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닥면이 필요없어 침대 방바닥 위에 가볍게 올려둘 수 있다. 가격은 3만9900원. /기린뉴스

알뜰주유소, 셀프로 전환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

출범 2년 만에 1000곳을 돌파한 알뜰주유소가 내년부터 대거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알뜰주유소의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주유소의 전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셀프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정유사 브랜드를 단 주유소들이 대거 셀프로 전환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셀프주유소는 2011년 325곳(전체 2.7%)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격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지난달 현재 1422곳(전체 11%)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 대비 ℓ당 평균 40원가량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알뜰주유소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업계 불황 속에 출혈 경쟁이 지속되면서 알뜰주유소가 애초 기대했던 저가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수희기자

‘양도세 감면’ 도장 하나라도 더!

세제 일몰 앞두고 건설사·고객 다급 · 휴일인 29일 이례적 계약접수

지난 4·1대책에서 마련한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계약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연내 계약까지만 마치면 돼 막판 열기가 뜨겁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명이 방문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는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잡은 게 주효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계약하면 양도세가 입주 후 5년간 감면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한모씨는 "입지나 분양가, 향후 예상 수익률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올해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분당에서부터 찾아 왔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확정한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건설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요일 계약에까지 불사하고 있다.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계약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illegible] 사랑으로 부영 ▲주곡 대실역 [illegible] 휴플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공주 송정e-다움 ▲창원 에코 센트럴 등 전국적으로 5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이 금기시돼 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송금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건설사도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11일 모집 공고를 낸 이들 단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당첨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9~11일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31일까지 3일간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일을 일요일인 29일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분양 업무를 해왔지만 일요일에 계약 접수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계약 시작일 29일과 30일은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요일 계약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제 혜택 일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신풍속도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마케팅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해져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 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 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 실종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과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선옥기자

타지역 부동산 관련서류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앞으로 타 지역의 토지·부동산·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비롯해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방문해 팩스 민원 청구를 활용해야 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자체의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3시간 정도 소비했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서비스의 이용률의 증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한화의 워킹맘들 성탄맞이 '모성 나눔' 봉사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워킹맘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화그룹 임스케어 봉사단 소속 워킹맘 10여 명은 23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 다양한 성탄 프로그램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화 제공

‘제주 부동산’ 열풍 뒤엔 ‘서울 사람’

인기몰이한 수익형 단지 수도권 투자자 대거 계약

연초부터 시작된 제주도 수익형 부동산 열풍이 올해가 다 가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 공급된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계약자의 40%가 강남구와 분당 거주자로 집계됐다. 서초·송파구 의 계약자를 포함하면 70% 이상 수도권에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도련동 소재 레지던스형 오피스텔인 '제주 아델로스' 역시 계약자 중 70%가량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자자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투자자들이 제주도행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위탁 운영사 의 관리가 꼽힌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전문 위탁사를 통하다 보니 관리상 어려움이 없고, 복잡하고 민감한 계약 관계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원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곳도 있지만 시행사가 영세할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항공편의 증가로 심리적 접근성이 양호해졌고, 관리상 편의성과 풍부한 수요가 뒷받침됨으로써 수도권 투자자의 제주 러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전략부터 면적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중흥건설 분양실적 3위

중흥건설이 올 한해 전국적으로 1만1543가구를 신규 분양하며, 대우건설과 부영주택에 이어 주택공급실적 3위를 기록했다.

올 초 광주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시, 충남 내포신도시, 전남 나주혁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특히 세종시에서만 4700여 가구를 선보였다.

중흥건설은 이 같은 실적과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한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만경 속 성장도 거듭하고 있다.

실제 '비업무용 자산은 사지 않고, 보증은 서지 않으며, 적자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수주하지 않는다'는 정창선 회장의 '3불 원칙'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보다 14계단 상승한 6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선옥기자

홈피에 몇자 적어봤더니 '경품'

휴파티 빛내줄 이색 야채들

신세계백화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홈파티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파티용 이색 야채를 선보이고 있다. 방울양배추·파스닙·살롯·펜넬·셀러리악·엔다이브 등 10여 종으로 유명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식재료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유통업계 고객 이벤트 '스토리 응모' 방식 붐

유통업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 각종 이벤트에 한창인 가운데 최근 할인이나 단순 뽑기 유도 방식보다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스토리형 이벤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각 브랜드의 기획 취지나 제품별 특징을 잘 담아내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이야기를 펴는 주제가 되도록 하는 이벤트를 통해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작위 추첨 이벤트보다 노력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동제약의 '직장인 숙취해소 프로젝트'는 연말 잦은 모임과 회식으로 숙취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공식 홈페이지에 숙취를 주제로 한 글을 올리면 당첨자를 선정해 '힘찬하루 헛개차'와 '헛개파워'로 구성된 숙취해소 키트를 회사로 보내준다.

티젠은 최근 출시한 '비움티 시리즈'의 기획 취지에 맞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친구야, 어제는 내가 미안했다' 이벤트를 열고 있다. 티젠 공식 페이스북의 이벤트 포스팅에 지인을 태그하고 댓글로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25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본죽은 밤늦게까지 업무나 과제로 주변 동료와 함께 고생했던 사연을 올리면 '추억의 동지팥죽'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값비싼 선물 대신 맛있는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팥죽을 당첨자에게 직접 배달해준다.

/정영일기자 jyrmo@metroseoul.co.kr

올해 온라인몰 소비 트렌드
모바일·신선·싱글족

이마트몰이 올해 온라인몰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온라인 쇼핑 3대 키워드로 모바일(MOBILE)과 신선식품(FRESH), 나홀로족(SINGLE)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온라인몰 쇼핑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쇼핑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지난해 57억원 수준이던 이마트몰의 모바일 쇼핑 매출은 올해 11월까지 47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로는 500억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10배가량의 매출이 예상된다. 평균 1인 소비 금액도 6만2019원으로 전년 대비 5% 가량 상승했다.

또다른 특징은 이마트몰이 모바일 쇼핑객의 시간대별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오전 6~9시)과 퇴근 시간(오후 6~9시)의 매출 비중이 26.4%와 21.2%로 전체 시간대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 이용객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의 구매 비중이 13%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이마트몰에서 신선식품(32.3%)이 처음으로 가공식품(31.5%)을 제치고 매출 비중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신선식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포함됐다.

이마트 측은 마지막으로는 나홀로 가구인 '싱글족'들이 늘어나면서 싱글족 관련 상품 매출도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 가정식은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85.8% 증가했다. 상품군별 매출 비중도 지난해 4%에서 올해는 6.2%로 크게 증가하였다.

싱글족을 겨냥한 소포장 상품인 990채소도 전년 대비 48% 신장했으며, 최근에 도입한 과일 낱개 골라 담기 역시 싱글족에게 인기를 얻으며 최근 한 달간 이마트몰 과일 매출의 약 20%까지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 /정영일기자 jyrmo@

'공공장소 음주제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한보건협회 캠페인

대한보건협회가 연말연시를 맞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지난 19일과 20일 서울 송파구 신천역과 잠실역에서 진행됐으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가상 음주운전 체험,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 주제인 '음주와 공공장소'를 주제로 '공공장소 음주 제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서명운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활동으로 대한보건협회는 향후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02)766-9520 /황재용기자

가계부·저금통·다이어리 '작심상품' 매출 급증

새해를 앞두고 온라인 마켓에서 저금통을 비롯해 가계부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새해 결심 상품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저금통과 가계부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새해 목표로 과소비를 줄이고 근검절약을 다짐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G마켓의 최근 한 달(11월 20일~12월 19일)간 저금통 판매량을 보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12/13~19) 동안에는 전년 동기 대비 5배(478%) 이상 급증했다. 가계부와 금전출납부도 최근 한 달 새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PC나 모바일을 가계부로 활용하면서 아날로그 가계부를 찾는 이들이 줄어 지난해에는 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다시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는 공부에 대한 결심을 반영하는 스터디다이어리와 프랭클린 플래너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149%, 60%씩 크게 증가했다. 스터디다이어리는 공부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제품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나 각종 자격증 및 시험공부를 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기본 스케줄러 판매량이 65% 늘어 가장 높았고, 재작년에는 디자인다이어리 판매가 33% 늘며 가장 수요가 많았다.

지난해(2012년) 이맘때에는 독서대(51%) 판매량이 두드러지며, 독서가 새해 목표로 인기를 끌었다. /황재용기자

이탈리안 브런치-일식 뷔페 '맛있는 콜라보'

쉐라톤인천 이색 메뉴

쉐라톤 인천 호텔이 최근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외식업계의 트렌드에 발맞춰 오는 25일과 내년 1월 1일 와우(WOW) 페스티브 브런치를 선보인다.

행사는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네' 브런치와 일식당 '미야비' 뷔페를 콜라보레이션한 메뉴로 호텔은 이번 행사가 양식과 일식 사이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고객들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네는 이번 페스티브 브런치에서 최적의 풍미를 끌어내고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레드 와인에 숙성시킨 등심 구이, 1파운드 버터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테일을 포함한 6가지 메인 요리를 선보인다. 또 오픈 키친 앞의 셰프 테이블에서는 갓 구운 빵을 비롯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애피타이저와 디저트가 뷔페식으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최고급 정통 일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야비는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해 빼어난 요리를 마련한다. 부드러운 대게고 야키, 촉촉하게 씹히는 신선한 초밥, 즉석에서 선보이는 샤부샤부가 제공되며 입안 가득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디저트는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다.

페스티브 브런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어른 8만원, 어린이 4만원이다. 문의: 032)835-1714~7 /황재용기자

Busan Aquarium
부산
아쿠아
마스
Shark Santa is coming to
Busan Aquarium
에잇 인심썼다 EVENT!
너 올겨울 외로울 거 같아서 같이 데리고 가준다!
facebook에서 올겨울 외로울 것 같은
이성 친구를 소환하면 무료입장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51) 740-1700
부산아쿠아리움

배고픈 설원 달랠 '간식 SOS'

열량소모 큰 겨울레저땐 영양만점 먹거리 챙겨요

겨울은 여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다. 특히 설원 위에서 즐기는 스키·보드와 같은 스포츠는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만인의 스포츠가 됐다. 그러나 스키 같은 경우 20분에 120㎉정도가 소모되는 고강도 스포츠로 본인의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돌(Dole)코리아가 출시한 '돌 트리플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를 포함한 엄선된 3종류의 과일에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을 원물 그대로 담아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또 수제 생산 방식(핸드메이드)으로 생산돼 그대로의 맛과 모양을 살려 생산 방식에서부터 타 브랜드의 제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한국허벌라이프의 '프로틴바 디럭스'는 1개당 단백질 10g, 7가지 필수 비타민, 칼슘까지 고루 들어있어 활동량이 많은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섭취해주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소량 포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질러 육포'는 소의 홍두깨살만을 사용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 열량을 많이 소비해 출출해진 배를 달래기에 안성맞춤이다.

겨울철에도 잠시간의 격한 운동을 즐기다 보면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 리커버'는 에너지 회복을 도와주는 타우린을 비롯해 비타민 B3·B6와 전해질 시스템 ION4 등이 포함돼 있어 야외 활동으로 인해 다량으로 소모된 에너지와 수분 보충에 탁월하다.

CJ제일제당의 '컨디션 헛개수'는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에 100% 국산 칡즙 등의 성분이 함유돼 마르고 갈증 날 때 유용하며 이는 작용·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 /정문일기자 jmoon@

'물오른' 겨울여자 돼볼까

히터 탓 건조 심한 사무실 오일미스트·CC쿠션으로 수시로 피부 보습관리를

온풍기 바람이 펑펑 나오는 사무실은 따뜻하지만 피부는 땅어른 논바닥처럼 메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빠르게 늙는다. 건조한 겨울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피부 보습 관리법을 소개한다.

출근길의 낮은 기온과 찬바람은 피부 손상의 주원인. 실내외 기온차 때문에 피부가 가렵거나 각질이 일어나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수분 미스트를 뿌려보자.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성들은 오일과 수분이 섞인 타입의 미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에서 20~30㎝ 떨어뜨려 분사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메이크업 위에도 수시로 뿌릴 수 있어 편리하다. 닥터지 비타엠톤 피에이치 미스트는 피부 산성도와 비슷한 pH 5.5의 약산성 워터가 각종 외부 인자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 밸런스를 맞춰준다.

◆30초 수정 화장엔 촉촉한 CC쿠션

업무에 지친 오후 시간, 이마와 코가 번들거릴 땐 수정 화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무실의 낮은 습도와 따뜻한 공기는 피부 표면을 건조하게 해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떨어뜨린다. 이때 수분을 다량 함유한 CC쿠션을 활용하면 보습 제품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지속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가루 파우더로 가볍게 얼굴을 쓸어주는 것도 좋다.

◆야근으로 퀭해진 안색엔 보습 크림

계속되는 야근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은 물론 피부가 거칠어지기 쉽다. 장시간 근무가 이어진다면 간단한 세안 후 보습크림을 충분히 바른다. 고기능성 보습크림은 자질과 수분막, 피지막의 피부 3중 보호막 강화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준다.

고운세상코스메틱 닥터지 관계자는 "건조한 사무실에서 피부 속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녹색 식물을 기르거나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다"며 "특히 하루에 물 8컵 이상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MBC아카데미 뷰티스쿨' 가맹점 모집

뷰티전문가 양성학원 개원서 정착까지 지원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이 본격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은 수강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으로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네일아트, 에스테틱, 헤어 등 뷰티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를 길러내는 뷰티 아티스트 양성 전문 미용학원이다.

개원 이후 탄탄한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 위주의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입지를 탄탄히 한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은 직영 캠퍼스 14개, 가맹 캠퍼스 28개 등 총 42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미용학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강사진의 일대일 맞춤형 교육, 소수 정예 수강생 관리 시스템, 현장 실습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은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더불어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은 업계 최초로 가맹 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센터를 오픈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경영지원센터에서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 운용은 물론 재무 설계, 캠퍼스 운영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경영 컨설팅 등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맹을 원하는 예비 창업주들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별도로 마련, 개원 초기 오픈부터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문의 www.mbcbeauty.co.kr 070)7606-5265~6 /세계영기자

2인분 가격으로 3인가족 외식

강강술래 '2+1'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이나 연인과 외식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여의도와 서초점에서는 한우모듬구이·왕양념갈비·한우궁중불고기 메뉴를, 역삼점은 왕양념갈비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증정한다.

또 24일 고양 능곡농원점에서는 저녁 8시30분 이후, 상계·신림 시흥점은 저녁 9시 이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양념구이류 2+1 행사를 진행한다(행사 메뉴 매장별 문의).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525-9292)을 통해 건강식품 할인행사도 함께 벌인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 2만2000원, 갈비맛 최고기육포세트(50g·6봉) 2만5900원 등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술넌세트(한우불고기 500g+숯래양념 52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500g)는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하며 찜찜한우떡갈비(3세트·1.08㎏·4만20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2만5200원)는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문일기자 jmoon@

요즘 뜨는 '100% 착즙주스' NFC 표기 확인을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든 식품을 선호하는 '바른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 품목 중 하나가 바로 '100% 착즙주스'다.

100% 착즙 주스는 국내시장에서 존재하던 오렌지 농축액을 수입해 물을 섞어 당도를 맞춰 '100% 주스'라는 수식어에 판매하던 기존 주스와는 달리 물을 섞지 않고 생오렌지만 짜서 담은 주스로 통한다. 이는 기존 주스보다 약 3배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프리미엄 주스 시장은 올해 6월 매일유업이 출시한 100% 프리미엄 착즙 주스인 '플로리다 내추럴(Florida's Natural)'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주스 전체 시장은 10%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프리미엄 주스시장은 20% 이상 고성장해 3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소비자가 '100% 프리미엄 주스'를 구입할 때는 NOT FROM CONCENTRATE(농축시키지 않은, NFC)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농축 과즙에 정제수(물)를 섞어 당도를 맞춘 '농축환원주스'도 '100%'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키지나 제품명에서 '프리미엄' 표기를 표방한 기존 주스를 100% 착즙 주스로 오인할 수 있다. /정문일기자 jmoon@

크리스마스엔? 아이스크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20여종· ·연말 홈파티 분위기 '업'

설렘이 가득한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면 파티를 더욱 빛내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해 보자.

◆크리스마스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대세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다양한 맛으로 구성돼 있어 화려한 디자인과 컬러풀한 색상으로 눈까지 즐거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패키지는 선물용으로도 좋다. 눈사람, 썰매 등 아기자기한 캐릭터 케이크와 여럿이 함께 즐기기 좋은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총 20여 종이 준비됐다. 모임의 규모와 성격, 인원수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 가능하다.

배스킨라빈스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만 89만 개 이상의 케이크 판매고를 올리며 대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100만 개 이상 판매를 목표로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신기술로 업그레이드…'3D 아이스크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세계 최초로 높은 수압을 이용해 케이크를 자르는 '워터커트'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로 '트리모양', '원통 모양' 등 다양한 곡선과 굴곡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다.

동화 속 달콤한 아이스크림 섬 모양의 '해피케슬'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숲을 이룬 '원터트리' 등이 대표 제품이니. 그리다 뉴욕치즈케이크 엄마는 외계인 등 인기 제품을 골라 먹는 재미와 더욱 화려하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보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았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해피캐슬' 3만3000원, '원터트리' 2만8000원.

◆ 허그쿠션 1000원 등 사은 경품도 제공

크리스마스를 맞아 배스킨라빈스는 선착순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구매 시 1000원에 '허그쿠션'을 증정한다. 시린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피곤할 때 손을 넣고 베고 쉴 수 있는 포근한 쿠션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앙증맞은 아기 물범 모양으로 어린이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또는 25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 배스킨라빈스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배스킨라빈스 산타 삼형제 이모티콘도 증정한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매장 검색 및 제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해 고객 친근성을 높였다.

/[illegible]기자

기업들 예술작가와 협업 줄잇는다

주방·욕실용품 회사 콜러 카프리 등 콜라보 출시 봄

지속되는 불황에 기업들은 지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예술과 접목시켜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트작가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부터 제품 출시까지 기업의 예술 콜라보레이션 활동이 다채롭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주방·욕실용품 기업인 콜러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기업의 아이덴티티인 '볼드(Bold)'를 예술로 승화시킨 아시아 아트 전시회 (사진 아래)를 개최했다.

자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홍콩, 대만에서 각각 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 전시회는 작가들이 포함된 4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비맥주 '카프리'는 유명 아티스트 스티키몬스터랩이 참여해 캐릭터 인형인 피규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을 최근 선보였다. 병맥주 제품 라벨에 '카프리와 함께하는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

쌤소나이트는 아트페어 행사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여행가방을 전시하고 판매를 했다. 뮤주라·손잔여, 지인영, 지용호 등 4인의 작가들이 내면세계를 여행가방에 적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위)는 '네파는 자유다'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활용해 다양한 예술 분야의 중진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설치미술,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3D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을 내놨다.

/[illegible]기자

듀퐁 남성용 지갑 '엘리제 레더' 클래식한 멋

프랑스 남성 잡화 브랜드 S.T 듀퐁이 그레이, 버건디 색상의 남성 가죽 지갑 '엘리제 레더'를 선보였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프랑스 국기를 연상케 하는 블루, 화이트, 레드 컬러의 스티치로 포인트를 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 깊이감 있는 색상과 우아한 광택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카드 수납공간이 6개 또는 8개인 지갑과 머니클립, 장지갑 등 다양한 종류로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다. 엘리제 레더 지갑은 전국 백화점 S.T 듀퐁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www.st-dupont.com

/[illegible]기자

이대의료원 글로벌 행보 캄보디아 헤브론과 MOU

이화여대 의료원이 최근 캄보디아의 헤브론병원과 환자 의뢰 및 의료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료 및 의료진 교육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양 병원은 진단 및 치료, 또는 수술 등 첨단 장비가 필요하거나 진료 의뢰가 있을 경우 환자를 이송해 진료·수술키로 했으며 의료 연구와 함께 의료진 교육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팔도 훈훈한 나눔봉사단 아동시설 돌며 산타축제

팔도 사내 봉사단체인 나눔봉사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국 11개 아동 복지시설을 방문해 '산타축제'를 열고,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비빔면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라면 제품 1000개를 각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팔도 비빔면'을 구매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 1건당 '팔도 비빔면' 5개를 아동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공공저작물 함께 누리는 것도 창조경제”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서 이관해 온 '공공누리'사업 정부 3.0정책 의지에 '속도' 홈피에 노출된 공공저작물 절차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공공누리 홈페이지 비단의 사료들

"기관이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비즈니스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사진) 소장은 공공데이터의 산업 잠재력을 간파한 선진국에서는 벌써 공공 저작물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화정보센터에서 전담 운영 중인 공공누리사업이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누리란 공공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2010년 12월 공공 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0-41호)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 공공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및 표시 마크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진행해오던 공공누리사업이 7월 1일 한국문화정보센터로 이관된 데다 정부 3.0 정책의 의지까지 반영돼 더욱 속도감을 내고 있다.

공공누리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된 공공 저작물은 표시된 범위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만든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최 소장은 "공공누리가 CCL보다 등록과 이용이 좀 더 간편하다"며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돼 있는 저작물을 확인하고 공공누리 4가지 유형의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78개 기관 95만건 자료 등록 '공공누리 마크' 찍힌 자료들 안심하고 맘껏 가져다 쓰길 ”

공공누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후 공공누리 적용 기관 및 마크 부착 저작물이 41개 기관 52만 건에서 2013년 12월 현재 78개 기관 약 95만 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공공누리를 이용한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어 공공 저작물 중 악귀의 침입을 막아주는 의미를 가진 '도깨비문양'을 문고리나 도어락에 적용해 제품의 고유 기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휴대용 충전기에도 '재생'의 의미를 가진 '연꽃문'을 적용해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이 밖에 꽃문, 나비문, 모란문 등이 여성들이 화장품을 담는 소품 주머니인 파우치나 문구류 등에 이용돼 상품화되고 있다.

최 소장은 "공공누리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정확히 표시해 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공누리 마크만 확인하면 자유롭게 공공 저작물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무척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공누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을 쉽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누리 설명회도 개최하고, 기관들을 개별 방문해 저작권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제도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 소장은 "공공누리가 빠르게 확산돼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공 저작물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공공 저작물은 발굴 공개하고 이러한 공공 저작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현기자 kmfen@metroseoul.co.kr

‘홈스터디+홈플레이’ 하나로!

겨울방학 교육용 IT기기랑 놀아요

학부모들에게 '고난의 시기'이 다가오고 있다.

방학을 맞아 게임이나 TV 등에만 매달리는 자녀들과 실랑이할 생각을 하니 머리부터 아파오기 십상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최근 IT업체들이 선보인 스마트한 교육용 기기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까지 키워줄 수 있다.

외국어에 관심 있는 자녀라면 위버스마인드의 '뇌새김'이 유용하다. 기기 하나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단어 암기는 물론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다.

단어와 문장을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읽으며 뇌에 자연스럽게 각인하는 학습법이 특징이다.

서울 시내 여러 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사용할 정도로 학습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각 과목당 최대 4명까지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 학부모가 경쟁하듯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다면 SK텔레콤이 출시한 '아띠'가 도움된다.

어린이들이 로봇을 만지고 움직이며 놀이를 통해 두뇌 계발과 신체 발달 등 다중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을 이용한 단어 맞히기와 리듬 게임도 들어있다. 스마트폰을 로봇의 두뇌로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가 잠들기 전 동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빔프로젝트인 웅진 '스토리빔'은 자녀의 방 천장을 한순간에 동화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백설공주', '미운 아기 오리'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한글 동화 75편과 영어 동화 25편을 포함해 전 세계 동화책 100여 권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독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현기자

KT '우리들의 광대역 이야기' 사연 이벤트 KT는 광대역 LTE 및 LTE-A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얻는 혜택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우리들의 광대역 이야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15일까지 올레닷컴 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LTE 및 LTE-A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연을 간략히 적으면 된다. /KT 제공

metro entertainment

힘은 싹 빼고 세련미 더했죠

새 앨범 '서브소닉' 발표 윤하

가수 윤하가 몰라보게 변했다. 새 앨범 '서브소닉'을 발표하며 음악적 정체성과 가요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돌아보게 됐다. 연애와 결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가수 윤하와 스물여섯 살 여인 고윤하(본명)는 모두 성장하고 있었다.

◆음악적 정체성 찾기

이번 앨범은 지난해 7월 발표한 4집 '슈퍼소닉'과 올해 5월 내놓은 미니앨범 '저스트 리슨'을 잇는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계약 분쟁을 털고 새 출발을 선언하며 시작한 프로젝트다.

"'슈퍼소닉'이 공백기 동안 느꼈던 음악 갈증을 풀고 싶은 외침이었다면, '서브소닉'은 아음속이라는 뜻처럼 천천히 부담 없이 힘을 빼고 만든 앨범이에요. 초음속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싶었던 '슈퍼소닉'과 달리 그저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쿠스틱의 편에 현악과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타이틀곡 '없어' 등 두 곡의 자작곡 등 다채로운 장르를 이루는 6개의 수록곡에서는 여유와 세련미가 느껴진다.

"다음 앨범에는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길이기도 하고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겼죠. 나의 선택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나주기도 했고, 특히 이번 앨범에 담은 자작곡에 처음으로 제 스스로 좋다고 느꼈어요."

◆한때 나쁜남자에 빠져

시작곡을 비롯한 새 앨범 수록곡들에 담긴 노랫말에는 한층 성숙한 감성의 연애관이 묻어난다.

"많이 바뀌었죠. 나쁜 남자에 빠져 지냈어요. 일부러 그런 남자를 찾아가서 상처받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요. 지금은 아빠처럼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 사랑에도 의리와 우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공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숨기고 싶지는 않아요."

현재 교제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거다"는 아리송한 답을 내놓는다. 그러면서도 "사장님이 아직 모른다. 곧 공개할 것"이라며 웃으며 농담처럼 던졌다. "연인과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여행 가고 싶어요. 김원·문근영씨 때문에 모든 비공개 커플들이 용기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0년안에 좋은 엄마 될 것

> 두곡 작곡… 장르는 다양
> 노랫말에 성숙미 묻어나
>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
> 내년 가수 데뷔 10년 맞아
> 다음 앨범 프로듀싱 할 것
> 연애? 숨기고 싶지 않아

결혼에 대한 신념도 분명하다. 내년 데뷔 10주년을 맞는 그는 다가올 10년 안에 좋은 엄마가 돼 있을 거라고 했다.

"훌륭한 여성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음악을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여자로서가 아닌 인간 고윤하로서 바라는 것도 분명하다.

"지난 10년 동안 나만을 위해, 내 커리어를 위해서만 살아왔죠. 음악이 나의 전부일 수 있지만 일이 전부가 된다면 소중한 음악마저도 잃게 될 거예요. 이제 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요. 늘 계획하고 다음 단계를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 충실히 살고 싶어요."

그는 27~28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스물여섯 그리고 둘'을 열고 보다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star bag

흥행 3연타 '2000만 배우'

송강호가 '변호인'의 흥행에 힘입어 국내 배우로는 처초로 한 해 2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인'은 20~22일 사흘간 138만 110명을 모아 누적 관객 175만 2162명을 기록했다. '설국열차'(934만 명)와 '관상'(913만 명)으로 올해만 1847만 명을 동원한 송강호는 22일까지 총 2022만 명을 불러모았다.

결혼 2년만에 첫 아이 가져

배우 유지태·**김효진** 부부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김효진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23일 "김효진이 임신 4주차에 접어 들었다"고 밝혔다. 김효진은 내년 2월 임상수 감독의 영화 '우리에겐 오늘이 없다'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임신 초기에 영화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하차를 결정했다. 김효진과 유지태는 4년 열애 끝에 2011년 웨딩마치를 울렸다.

中 멜로영화로 활동재개

배우 **박시후**가 중국 영화로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는 23일 박시후가 중국 멜로영화 '향기'(가제)에서 한국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민준 역을 맡았다고 전했다. '향기'는 지난해 홍콩 금장상 영화제에서 '대관호'로 신인감독상을 받은 제사 황 쥐이산의 신작으로, 박시후는 중국 배우 천관과 호흡을 맞춘다. 그는 이달 말 중국으로 출국해 상하이와 제주를 오가며 촬영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日 팬미팅

걸그룹 **걸스데이**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

걸스데이는 24일 일본 지바현의 클럽 지타에서 오후 1시·6시 2회에 걸쳐 '크리스마스 키스'라는 타이틀로 팬미팅을 개최한다. 일본 공연업체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팬미팅에서 걸스데이는 노래와 다양한 볼거리로 1000여 명의 일본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1월 3일 신곡을 발표한다.

배용준 연인은 14세 연하 '엄친딸'

한류스타 배용준(사진)이 14세 연하인 27세 일반인 여성과 교제 중이다.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는 23일 일본 닛칸스포츠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배용준씨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개월째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연인이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업 경영자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일반인인 만큼 소속사에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닛칸스포츠는 '욘사마 연인 대기업 따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미소의 귀공자 슈퍼스타가 마침내 애인을 찾았다"며 대서특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배용준은 2년 만인 10월 한류 10주년 행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여러 차례 갔다. 지난달 28일에는 연인과 함께 일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용준은 하와이에서 경영하는 카페의 점장 부부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갔고, 행사 참석 외에는 연인과 함께 도쿄 인근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는 등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다. 일주일간의 일본 체류를 마치고 4일 하네다공항으로 귀국할 때에는 검은색의 커플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기업 CEO자녀로 알려져 소개로 만나 3개월째 열애 커플모자 쓴 모습도 포착돼

이 신문은 배용준의 연인은 170cm의 키에 영어에 능통하고 활발한 성격을 지녔다고 목격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배용준의 근황도 소개했다. 배용준은 하와이에 장기 체류하며 커피에 푹 빠지게 됐고 6월에는 현지에 카페를 열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집에 구비한 로스팅 장비로 직접 만든 커피를 연인과 나눠 마시며 사랑을 키워갔다.

배용준은 2004년 뮤직비디오 및 CF 감독인 이사강과 결별한 후 공개 연애를 하지 않았다.

/황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Issue & View
끊이지 않은 드라마 표절 시비
/김민준기자 vov@metroseoul.co.kr

'별그대' 등 인기작 베끼기 논란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든 비극"

한동안 잠잠했던 드라마 표절 논란이 시작됐다.

단 2회 만에 시청률 18%(닐슨코리아 제공)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갑작스러운 표절 의혹이 불거져 당혹스럽다. '별그대'가 기존 만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과 없는 표절 논란

'별그대' 이전에도 인기작 중 상당수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올 상반기 최고 히트작으로 꼽히는 SBS '야왕'은 극본을 맡은 이희명 작가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희명 작가가 최린 작가의 대본을 표절했다며 제명 조치를 내렸고, 이희명 작가는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과 명예를 되찾겠다"며 협회를 고소했다.

SBS '다섯손가락'은 소설 '살인 광시곡'에 등장하는 가족 간의 갈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작진 측은 "어느 곳에서나 나올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몇 가지 나열하고, 이를 표절로 몰고 가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주연 작가는 "거대 방송사의 잠정 대응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난감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지난해 11월 출간한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속 작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제작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일단락됐다.

◆애매한 기준에 징계도 약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대사, 등장인물, 플롯, 사건 전개 과정, 작품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드라마가 표절에 해당되도 징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이다. 드라마 작가들이 표절로 문제가 된 소설 등에 대해 "대사나 글귀가 마음에 들어 메모했다가 사용했다"고 사과하면 징계 없이 끝난다. 2010년 KBS2 드라마시티 '달팽이 고시원'이 일본 소설 '와세다 1.5평 청춘기'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제작진은 "윤지희 작가가 그 소설을 좋아해 대사를 메모해뒀다가 차용했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수준으로 일단락됐다.

◆끊임없는 표절 논란 왜?

한 방송 관계자는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 때문"이라며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사로서는 표절 의혹에도 소재의 시청률을 보장한다면 특별한 검증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높은 시청률을 위해 일본의 인기 소설이나 드라마 등을 베끼거나, 캐스팅 과정에서 도는 시놉시스를 몰래 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표절한 작가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 없이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보다 드라마에 불똥이 튈 것을 더 염려하는 등 표절에 둔감해 표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tvN | JS pictures

소녀시대 파격 패러디

'메르헨 판타지'서 9인 9색 매력 선보여

소녀시대(사진)가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파격적인 패러디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메르헨 판타지'에서 이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한 히트곡,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캐럴 및 겨울 시즌송 등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멤버들의 개별 무대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좀처럼 부르지 않았던 소녀시대는 이례적으로 동료들의 노래를 완벽한 퍼포먼스와 함께 소화했다.

티파니와 유리가 씨스타19의 '마 보이'를, 써니는 가인의 '피에나', 수영은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제시카는 이효리의 '미스코리아'를 완벽히 재현했다. 멤버들은 "콘서트에서 주로 팬송을 불렀는데 이번에 색다르게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순호기자

황홀한 이승철 콘서트

'온몸으로 즐기자' 콘셉트…클럽 온듯한 무대

보컬의 신 이승철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밤을 환상의 라이브 향연으로 뒤덮었다.

이승철은 20~22일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2013 이승철 크리스마스 콘서트 캐럴라인'을 개최했다. 발레와 뮤지컬 형식의 웅장한 오프닝, 겨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초대형 세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현대무용 퍼포먼스 등은 라이브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공연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에서 이승철은 엠넷 '슈퍼스타K'의 심사위원으로서 왜 그렇게 타고난 능력을 강조하고 눈여겨보는지 무대에서 몸소 설명했다. 타고난 능력이 없이는 소화하기 불가능한 레퍼토리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히 소화했다.

고난도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 발라드 '잊었니'를 부른 직후 숨도 제 돌리지 않고 점프를 하며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를 불렀고, 마지막 콘서트'를 열창하고 스산한 감상이 가시기도 전에 '긴하루'와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내리 불렀다.

크리스마스를 관객과 함께 온몸

으로 즐기자는 콘셉트로 히트곡 위주의 선곡을 했고, 관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네온 불빛을 장착한 재킷 차림으로 '정글북', '오늘도 난', '방황', '넬리즈 나비다'를 메들리로 부르는 댄스 타임에서는 공연장 전체가 거대한 클럽으로 변했다.

'안연', '그 사람', '오직 너뿐인 나', '사랑 참 어렵다', '희야'를 묶어 이별을 주제로 한 토크 뮤직 형식으로 풀어내며 지존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했다. 이승철은 24일 서울에서 마지막 공연을 연 뒤 31일 대구에서 전국투어를 마무리한다.

/윤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metro Canada

Université. Les femmes toujours peu enclines à choisir les sciences

39 %

캐나다 여성도 이공계 기피 … 교육·건강 편중

캐나다에서 여성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능력은 뛰어남지만 전공 선택 과정에서 과학·수학 등 이공계를 선택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16일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공계 학사 학위를 받은 여학생의 비율은 39%에 그친 반면, 교육 및 건강 관련 학사 학위를 받은 여학생 비율은 66~80%에 달했다.

metro Brazil

PS3 e celula campeões d

한물 간 PS3·아이폰4, 브라질서 최고 인기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 브라질 메트로가 가격 비교 사이트 즘과 함께 1~13일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조사한 결과 소니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와 아이폰4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구형 제품이 상위 랭크에 오른 것은 신형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metro Russia

못판 위의 철인 5시간20분 버텨

최근 전러시아박람회장 내 보스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모스크바 청년 포럼의 일환으로 '못 위에 오래 서 있기'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에서 게오르기 고르게라드제는 2012년 세웠던 본인의 기네스 신기록인 4시간15분보다 1시간 늘어난 5시간20분으로 새로운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 도전 규칙은 1cm 간격으로 세워진 두께 5mm, 길이 10cm의 못 위에 오래 서 있는 것으로, 한 시간마다 5분씩 못 위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포럼 주최 측은 건강한 생활상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못 위에 서 있으라고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젊은 청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 절제와 인내를 통해 인간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고르게라드제는 "4시간 정도 서 있는 것이 목표였지만 5시간이 지나자 급격한 체력 저하와 피곤함을 느껴 중단하게 됐다"며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 기네스 신기록 수립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못 위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만 아픔을 견디기 위해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등 행복한 상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와 팔찌를 착용하고 요가복 같은 편안한 옷차림을 하는 것 역시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라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벨야예프·정리=조선미기자

In·Smart

환갑에 쌍둥이 출산 '기적'

4년 전 외동딸 잃고 인공수정 통해 두딸 얻은 中 최고령 산모… '건강비결' 강사로 변신

외동딸을 잃고 환갑의 나이에 쌍둥이 딸을 낳은 중국 여성이 화제다.

안후이성의 성하이린(盛海琳)은 4년 전 사고로 외동딸을 잃었다. 2009년 딸 팅팅이 남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갔다가 밤에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슬픔에 그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미 60세였던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다. 석 달 동안 약으로 몸을 회복시키면서 신체 기능들이 매우 좋아졌고, 생리도 돌아왔다. 2009년 10월 13일 그는 시험관시술을 했다.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정한 배아 3개를 체내에 이식했다.

60세의 여성이 열 달 동안 아이를 배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혈, 부종, 전신 통증 등 고통을 견딘 끝에 2010년 5월 25일 1.85kg, 1.45kg의 쌍둥이 딸 즈즈(智智)와 후이후이(慧慧)가 태어났다. 그는 중국 최고령 산모가 됐다.

두 아이가 없다면 성하이린 부부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풍족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출산 100일 후부터 그는 전국 각지에서 건강 강의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난징, 청두, 러산, 충칭, 상하이, 지닝, 광저우, 선전, 다롄이 그의 12월 일정이다.

많은 나이에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없어 그는 전일제, 시간제 보모들을 고용했다. 아이 양육과 보모 월급으로 한 달에 드는 돈은 1만 위안(약 175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이들과 같이하는 시간이 적은 탓에 아이들이 보모를 더 좋아해 그는 씁쓸한 마음도 든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왜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에 대해 말해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이 화식주 걱정 없이 교육받으며 자라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자녀가 하나 뿐이다. 중국 위생부의 '2010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외자식이 사망한 가정이 매년 7만6000가구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가정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가 넘는다.

/정리=조선미기자

추신수 잭팟…병역혜택도 '한몫'

이한호의 베이스볼 카페

추신수는 2009년 제2회 WBC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당시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유일한 메이저리그 선수로 대표팀에 참가했다. 그러나 일본 도쿄돔 아시아라운드를 앞두고 팔꿈치 통증을 일으켰다. 소속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아예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며 추신수의 구단 복귀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부상검토위원회가 팔꿈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에야 출전 허락이 떨어졌다. 그것도 수비는 못 하고 지명타자로만 출전하라는 조건이었고 타격훈련도 제한을 뒀다. 추신수 출전 여부 때문에 대표팀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국민들은 추신수가 제 몫을 할 것으로 믿었다.

당시 도쿄돔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던 추신수의 얼굴이 선하다. 추신수가 팔꿈치가 성치 않은데도 출전을 감행한 이유는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2년의 군 입대는 메이저리그 복귀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회를 맞이한 추신수는 "대주자라도 나가겠다"는 근성과 화려한 타격을 보여주며 준우승에 일조했다. 그럼에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 WBC 대회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추신수는 준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입성했고 자신이 다른 타격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보상으로 추신수는 4주 군사훈련만 받고 군 문제를 해결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하면서 7년 1억3000만 달러(약 1379억원)짜리 잭팟을 터트렸다. 메이저리그 역대 자유계약선수(FA) 7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때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일본인 전제 타자 스즈키 이치로(5년 9000만 달러)를 넘는 큰 돈이었다.

추신수는 성실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고 뚜렷한 실적을 올려 억만장자라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행운이었다. 대부분의 야구스타들은 병역 혜택을 발판 삼아 대박을 터트렸다. 바로 국민과 나라가 그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OSEN 야구전문기자

"승부 키워드는 소통·체력"

박종환 성남FC 초대 감독

박종환(75) 감독이 성남시민축구단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7년 만에 축구계로 돌아왔다.

박 감독은 23일 성남시청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다. 과거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선수들에게 강력한 체력과 스피드를 요구하며 조직력을 앞세운 이른바 '벌떼 축구'를 구사해온 박 감독은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이 하는 스포츠다. 상대보다 한 발짝 더 뛰고 90분 내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경도 높은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유명한 그가 신세대 선수들과 불통의 우려를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선수에게 손을 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나이 차이가 많아지니까 선수들이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인다. 가까이 다가서서 소통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공격적이고 올라운드 플레이로 경기에 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K리그에 모범이 되는 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소희기자

박종환 감독이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민축구단 초대 사령탑으로 임명된 뒤 선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23일

국민은행	19	19	17	25	80
우리은행	23	19	14	21	77

<연봉 포함 3년 계약>

이대호 몸값 148억원!

소프트뱅크와 옵션 협상 · 오늘 최종발표

'빅보이' 이대호(31·사진)가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전망이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23일 "소프트뱅크가 이대호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소프트뱅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대호 영입이 결정됐다.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며 최종적으로 내부 조율을 거쳐 24일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오 사다하루 소프트뱅크 구단 회장은 "어제 마무리됐다. 달라진 이야기는 없다"고 이대호 영입을 확실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몸값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연봉을 포함해 3년간 14억5000만 엔(약 147억90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3년째 계약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든 이대호의 실제 계약기간은 2+1년이 된다. 계약금으로 5000만 엔을 받고 내년 연봉 4억 엔, 2015~2016년 연봉은 5억 엔을 받는다.

추가 옵션을 놓고 양측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 알려진 1억5000만 엔보다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퍼시픽리그 4위로 추락하면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 작업을 벌여왔다.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3명의 외국인 투수를 영입한 소프트뱅크는 외국인 타자로는 확실한 카드 인 이대호만을 꾸준히 노려왔다.

2012년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에 입단한 이대호는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타율 0.286, 24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타율 0.303, 24홈런 91타점을 기록하며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4억 엔 이상의 연봉을 받은 선수는 포수 아베 신노스케(5억7000만 엔), 투수 스기우치 도시야(5억 엔), 우쓰미 데쓰야(4억 엔 이상·요미우리 자이언츠),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4억 엔·라쿠텐 골든이글스) 등 4명뿐이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모태범 500m 1위… "더 강해졌다" 23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0회 전국남녀 스피드 스프린트선수권 대회 겸 제1회 전국남녀 스피드 통합선수권대회 스프린트 남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대한항공 소속의 모태범이 역주하고 있다. 모태범은 1차 레이스에서 35.59로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박지성 풀타임…에인트호번 2연승

부상에서 돌아온 해외파 축구 선수들의 출격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사진)이 팀에 2연승을 안기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박지성은 23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ADO 덴하흐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16일 FC 위트레흐트와의 경기에서 후반 34분까지 뛰며 5-1 대승을 이끌었던 박지성은 이날 경기에서는 2-0 승리를 도왔다.

7경기 연속 무승(2무5패)의 부진에 빠졌던 에인트호번은 7승5무6패, 승점 26을 기록하며 18개 팀 가운데 7위로 순위가 올랐다. 1위 아약스 암스테르담(11승4무3패)과는 승점 11점 차이다. 에인트호번의 뤼르트 보카디아는 혼자 두 골을 넣었다.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구자철(24)도 이날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묀헨글라트바흐와의 2013~2014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2로 팽팽하던 후반 87분 교체 투입돼 6분여를 뛰었다. 15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두 달여 만의 복귀전을 치른 구자철은 이날 2경기 연속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의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팀은 무승부를 거두고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유순호기자

"추 영입 텍사스 무서운 타선"

추신수(31)를 영입한 텍사스 레인저스가 무서운 타선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SB네이션은 23일 "텍사스가 추신수와의 계약을 통해 라인업의 꼭대기에 '체리'를 얹었다"며 "텍사스에 추신수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SB네이션은 추신수의 출루율을 장점으로 꼽았다.

추신수는 올해 신시내티 레즈에서 출루율 0.423을 찍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추신수보다 나은 출루율을 보인 선수는 단 세 명뿐으로, 텍사스에서 리드오프를 맡던 이언 킨슬러의 출루율 0.359에 비하면 훨씬 더 인상적이다. SB네이션은 텍사스 타선이 훨씬 더 역동성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훈기자 sun@

'우아한' 개인주의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사가와후지'는 나무 소재를 이용한 핸드메이드 안경테를 만드는 아이웨어(Eyewear) 브랜드다. 소재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은 물론이고 브랜드 정체성과 철학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된 매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되 브랜드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지키는 덕분이다. 최근에는 뉴욕의 대형 전시회 참가를 결정했는데 이유인즉 사가와후지가 추구하는 상품 소개 형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참가하려 발버둥치는 브랜드들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르다.

'느와르 라르메스'는 얼마 전 홈페이지에 예상치 못했던 공지를 올렸다. 공지는 국내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느와르 라르메스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으나 중요한 건 국내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극장가에 재개봉 바람이 불고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러브액츄얼리'와 같은 시즌 영화부터 '시네마천국', '연인', '러브레터'까지 추억을 되살리는 명작이 잇따라 등장했다. 재개봉 작의 특징 중 하나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점이다. 삼삼하니 화려한 영상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개봉은 극장이나 배급사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다. 극단적 요소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관객의 주머니를 털기에 쉬우니까.

지금은 격(格)의 시대다. 영어를 빌리자면 엘레강스(Elegance)다. 사람의 모양새든 소비든 상호관계든 우아함이란 정서가 유효하다. 예전에는 그 우아함이 점잖게 있는 척 혹은 적은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젠 굳이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 갖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Refusal)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순간 의식하는 '척'을 버리고 더 먼 미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개인주의적 수용 자세다. 내가 나를 솔직하게 마주할 때 우아해진다. 2014년 생을 표어로, 우아함은 거절이다(Elegance is Refusal)을 삼는 것도 괜찮지 싶다.

/인디케이션(www.idc.co.kr) 대표

날씨

12/24 火 해뜨는 시각 07:44 해지는 시각 17: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4/5
청주	-6/6
대전	-6/6
전주	-4/7
광주	-3/7
제주	5/9
강릉	-1/6
울릉도	2/5
대구	-2/7
포항	-1/8
울산	-2/8
부산	-1/8

추운 날씨지만 꼭 건강과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하루 10분 정도 햇볕을 쬐이고 계란이나 생선과 같은 음식들을 섭취해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i006.com

공무원 시험서 몇년째 미끄럼 2016년 음력 7월 지나야 '술술'

미래불안 여자 88년 1월 27일(음력) 저녁 8시4분

Q 안 좋은 일의 연속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인데 '내년 즈음 합격하'라는 주변의 권유과 달리 몇 년째 낙방입니다. 과연 합격 가능할까요? 제 사주가 좋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보면 과연 좋은 건가 싶네요.

A 무엇을 하더라도 2016년 음력 7월이 지나야 계교하고자 하는 것이 풀려가니 막연하게 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십시오. 상관견재(傷官見財) 성분은 대개 생각이 많고 직장에 변동이 많아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암시가 되니 2014년 직장을 다니거나 지속 한격을 하려면 더욱 정진하십시오. 세상만사는 다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인연과 애틋한 아니라 공부의 성취도 연결되어 있어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지요. 수(水) 기운이 부족하여 오히려 낙정관살(落井關殺) 등으로 인한 흉액으로 익수지환(溺水之患)을 당한다는 암시가 있으니 자궁·간·신장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정신적인 면이 좋으니 30대 중반부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귄지 두달 인연의 끝은? 결혼식을 함께 하진 않을듯

뭐가다 남자 85년 4월 18일(음력) 저녁 7시45분
여자 83년 8월 22일 새벽 3~4시

Q 두 살 차 연하남과 연상녀 커플입니다. 만난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운이 어떨까요? 내년에 이직을 고려 중인데 잘될지 궁금합니다.

A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세상 이치는 단 한 번으로 정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시가 있고 난 다음에야 본 게임이 시작되는 법이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운명이란 과연 있을까 묻는다면 답은 '있다'입니다. 여기에서 운명이란 운(運)만이 아닌 명(命)도 함께 말합니다. 운이란 시운(時運), 즉 문자 그대로 때의 운을 말합니다. 노력하는 성격이니 자질, 타고난 머리와 감각, 그릇의 크기 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운이란 흐르는 것이기에 이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다 한 우물을 파거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에게 결국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7	1	5				
		9	7		4		5	
6	1		5			9		
				4				
9	7		8			4		
		1	3		8		9	
		5	4	9				
						7		2

	9	2				4	3	
6								5
	3		9		7		1	
		5	6		8	3		
1	6			7			8	4
		8	3		4	5		
	4		1		3		5	
3								9
	8	6				1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제공 미디어 리미티드 저음)

신점[神占]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2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60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현상 유지하라. 72년생 귀인이 나타나 고민 해결해준다. 84년생 동료와 소통하는 데 신경 써라.

소: 49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 61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생겨 여유롭다. 73년생 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조심할 것. 85년생 친구의 일로 분주한 하루가 된다.

호랑이: 5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있다. 62년생 계획대로 원활 진행할 것. 74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서 자신감 넘친다. 86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여 큰 것 놓치지 않도록.

토끼: 51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63년생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75년생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은 욕심내지 마라. 87년생 연말에 좋은 일이 생긴다.

용: 52년생 독설은 독설을 부른다. 64년생 사람 얻으려면 고집은 꺾어라. 76년생 주관이 너무 강하면 적만 생긴다. 88년생 간박한 소원을 이뤄서 유쾌한 하루~

뱀: 53년생 누울 자리를 봐가며 다리 뻗어라. 65년생 원만한 대인관계 덕을 본다. 77년생 너무만 보지 말고 속도 보아라. 89년생 젊은은 좋으니 애정운은 길하다.

말: 42년생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54년생 자녀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 66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78년생 속내 일찍 드러내면 손해 볼 수도.

양: 43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5년생 모임에 가면 기분 상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명분으로 인한 동료와의 마찰 피하라. 79년생 원하던 정보는 우연히 얻는다.

원숭이: 44년생 면전에 큐러가면 낭패 본다. 56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대세 따르라. 68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나중에 덤을 친다. 80년생 상사의 말에 토달지 마라.

닭: 45년생 말썽이 많은 사람 가까이 마라. 57년생 뜻밖의 매출 신장에 즐겁다. 6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좀 더 기다려야. 81년생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개: 46년생 사소한 근심이 생긴다. 58년생 자녀와 소통하려면 권고를 생각 버려라. 70년생 남쪽에서 고민 해결할 귀인이 온다. 82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언행 조심.

돼지: 47년생 내 뜻을 남에게 강요 마라. 59년생 고난은 가고 행복이 찾아온다. 71년생 박수가 쏟아져도 잘난 척은 절대 금물~ 83년생 오락에 빠지면 잃는 게 많다.